

# 그림에게 말 걸기 - 7

## 고독한 숨바꼭질을 하다

### \_ 오딜롱 르동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는 곧 있으면 동네 뒷동산에 걸릴 터였다. 어스름 속에서 친구들은 삼시간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전주 뒤에 숨을까, 포터 트럭 뒤에 앉아 있을까? 이번에는 완벽하게 숨고 싶었다. 해는 곧 넘어갈 테고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숨바꼭질이 될 테니까.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머릿속을 스쳐 가는 공간이 있었다. 동네에서 한 블록 떨어진 수상한 집. 대나무가 집 양옆으로 솟아있고, 대나무 끝에는 색색의 끈이 달린 곳. 1층 미닫이문에는 큼지막하고 투박한 글씨로 ‘천신보살’이 빨간색으로 박혀 있었다. 나는 미닫이문 옆으로 난 쪽문을 밀고 들어가 한쪽에 숨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전주에 달린 노란색 등이 하나둘 켜졌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못 찾겠어. 어서 나와!” 하고 술래의 불멘소리가 곧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를 찾는 술래나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제야 덜컹 겁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어른들이 비밀스럽게 찾는 곳.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던 곳. 갑자기 불안해진 나는 괜히 방울 소리가 들린 것처럼 혼비백산 뛰쳐나왔다. 어둑해진 동네엔 술래도 아이

들의 자취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나는 분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훌쩍이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

숨바꼭질은 숨는 게 본질인 것 같지만 찾아내지 못하면 끝나지 않는 놀이다. 술래가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제야 의기양양하게 “나 저기에 숨었지롱” 하고 숨어있던 곳을 알려주지만, 저 밑바닥에선 “나를 찾아줘!”라는 바람을 품고 있는 놀이. 숨바꼭질에선 술래의 찾고자 하는 욕망과 아이들의 발견되기를 바라는 심층의 욕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희열이 발생한다.

이런 경향은 상징주의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술가들은 술래가 되어 현실 너머, 미지의 차원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기존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한 세계를 자신만의 상징을 통해 형상화했다. 그렇게 미지의 세계는 예술가에게 발견되고 발전되고 또 풍성해졌다. 그런데도 너무 주관적인 세계라 설득되거나 매혹되지 않으면 예술이 되지 않는 세계였다. 예술에서 상징주의라 명명되는 시대의 초상은 이처럼 다분히 수수께끼처럼 다가왔다.

“어린 시절 나는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커튼 뒤라든지 집안의 어두운 구석  
등에 남몰래 숨어, 그로부터 묘한 기쁨을  
맛보곤 하던 기억이 납니다.”

상징주의 화가로 불리는 르동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어둠 속 공간은 바깥 세계와 단절된 르동만의 세계였으며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곳엔 눈이 달린 식물이 자라고, 수상한 눈이 공중에 떠 있고 눈으로 된 애드벌룬과 한쪽 눈의 키클롭스가 웃고 있었다.

르동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판화와 석판화를 주로 그리며 검은색에 천착했다. 왜 하필 검은색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검은색화에 대한 예술적 근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삼촌 집에서 11년간을 살았던 르동은 그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아예 박탈당한 그곳은 정신력과 상상력이 분풀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르동은 1840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외삼촌이 관리하는 페일르버드 농가로 보내진다. 나름의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아이에게 그 시간은 가혹했다. 왜 엄마는 나를 찾지 않을까? 왜 가족들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까?

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과 배신감은 검은색화의 ‘악몽’, ‘그로테스크’, ‘몽환적인’ 등의 정서를 만들어냈다.

르동의 검은색화(Noir)에서는 기이한 생명체와 함께 빈번하게 눈이 나타난다. 본다는 건 발견의 의미를 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다. 르동의 눈이 현실 너머의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하면 그것은 이제 추상적 공간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 그가 발견한 세계가 다시 르동을 바라본다. 이제 르동이 저쪽 세계에서 발견되고 존재를 인정받는다. 이 조응의 순간은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 서로를 확인하는 일이며 그래서 숨바꼭질의 구조와 닮았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자 르동은 자신을 찾아줄 세계를 탐구했는지도 모른다. 검은색화는 그래서 르동 자신이 발명했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발견되는 지점이었다.

그로테스크한 환상의 세계를 그린 르동. 현실 세계에서 그를 먼저 발견한 건 미술계가 아니라 문학계였다. 프랑스 작가 위스망스는 그의 책 <거꾸로>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어 르동의 그림을 묘사한다. “이 그림들은 모든 것의 밖에 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그림의 한계를 벗어나 있었고 매우 특별한 환상, 병과 광기의 환상을 혁신했다.”

<거꾸로>의 성공 이후 독자와 작가들은 아직 보지도 못한 르동의 그림을 궁금해했다. 위스망스는 르동을 대중과 문학가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말라르메를 위시한 상징주의 작가들에게 르동을 소개했고 이후 상징주의 작가는 르동의 검은색화에 열광한다.



There was perhaps a first vision attempted in the flower\_1883\_www.artic.edu



Everywhere eyeballs are aflame\_1888\_www.artic.edu



Eye Balloon\_1878\_www.moma.org



A sort of Smiling and Hideous cyclops\_1883\_www.nga.gov



Cactus Man\_1881  
\_www.curator.com



Smile spider\_1881  
\_www.louvre.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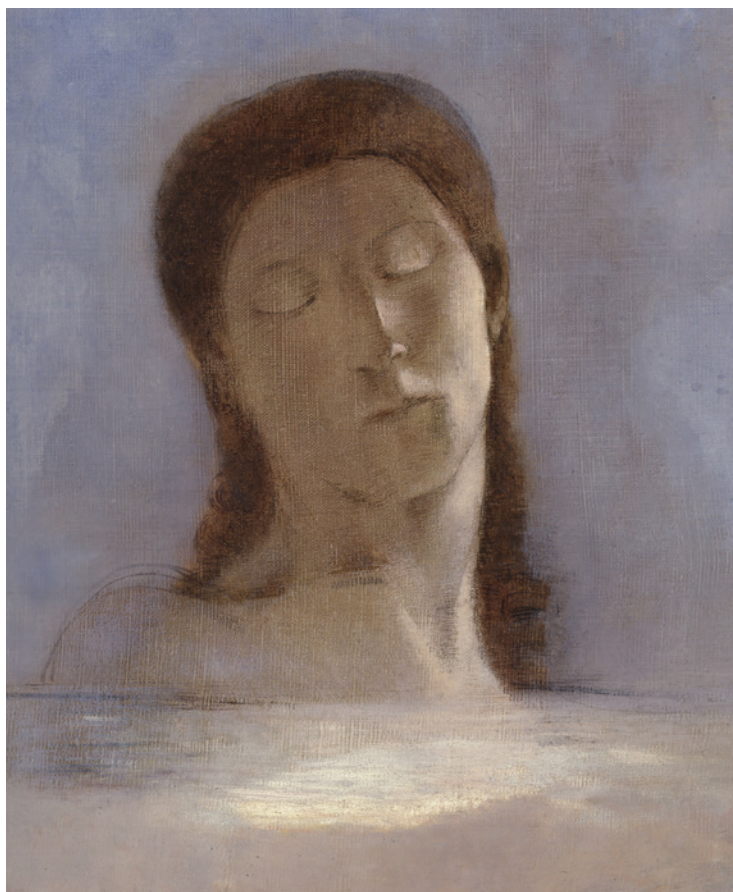
Strange flower\_1880  
\_www.artic.edu



The Crying Spider\_1881  
\_www.arthistoryproject.com

문학에서 시작된 상징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문학, 미술, 음악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문예 운동이었다. 하지만 예술 사조의 정의가 모호하듯, 상징주의도 명쾌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 부족하지만,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성을 뽑자면,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 정도가 될 듯하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는 르동의 그림이 “우리가 사는 현실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중요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때는 일군의 예술가들이 유물론과 자연주의의 객관적인 세계에 맞서 주관의 세계를 다시 소환하는 시절이었다. 상징주의와 낭만주의가 주관적인 내면에 집중한 점은 비슷하지만, 상징주의자들은 작가의 내면을 자연과 동기화하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세계의 이면이 존재함을 상정했다. 그 세계엔 신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질적인 것들이 가득 도사리기도 하고, 낯선 감수성이 살아 숨 쉴 수도 있다. 각자가 주관의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상징으로 그 세계를 환기한다. 그래서 상징주의에선 분위기가 중요했다. 설명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암시적인 방식으로 다른 차원을 보여줬다. 이런 상징주의 세계관을 이미지로 잘 표현한 이가 바로 르동이었다. 하지만 르동은 정작 문학



Closed Eyes\_1890 \_www.musee-orsay.fr

적으로만 자신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렇다고 문학에서 받은 영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에드거 앨런 포에게 바친다>와 플로베르의 소설을 읽고 <성 앙투안의 유혹>의 석판화집을 냈으며 보들레르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은 동판화집 <악의 꽃>도 출판했다. 문학과와의 관계는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상징주의 작가들의 예찬에서 시작된 르동의 그림은 서서히 화단과 대중에게도 알려졌다. 1894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성공적인 개인전을 열었고 그 결과 프랑스의 대가로 평가받았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르동은 자신을 사로잡았던 검은색의 세계 대신 다른 세계를 찾아 나선다. 1890년에 그린 <검은 눈>은 그런 그의 변화를 예고하는 그림처럼 보인다.

그림 속엔 한 인물이 모호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다. 그 인물은 다른 공간의 존재이자 르동 자신으로 볼 수 있다. 표정은 명상적이고 어딘가 체념적이다. 그는 가족들도, 화단에서도 오랫동안 자신을 찾지 않던 우울한 날들을 떠올린다. 잇따른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절친이었던 안느캥과 클라보의 죽음을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느낀다. 예술가와 대중이 자신

을 발견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곁에는 든든한 아내까지 있다. 이번엔 눈을 뜨면 다른 세계가 열릴 것만 같다. 이번엔 어둡거나 그로테스크한 것 대신 눈부신 색채와 신비로운 신화의 세계를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만드는 가운데... 삶이란 즐거움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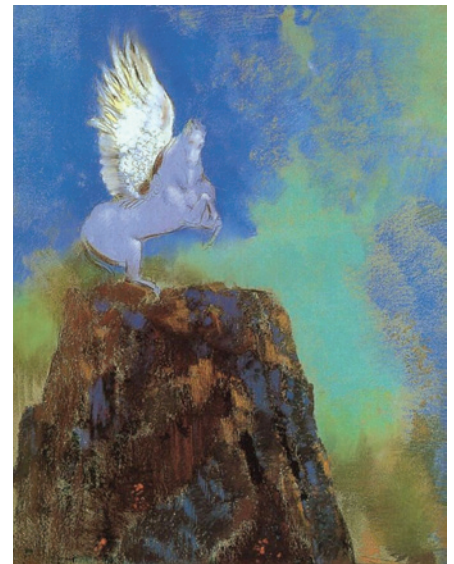
르동은 1895년 이후로 주로 채색화를 그린다. 여전히 낮은 감각이지만 아름다운, 어디에도 없는 분위기를 자신만의 상징으로 그려냈다. 독특한 질서로 채색된 그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아닌 흘러내리고 뭉개지는 몽환적인 이미지들을 찾았다. 그리고 파스텔의 독특한 질감으로 아련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게 르동은 채색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한 꺼풀 더 벗겨냈다. 새로 개안한 눈으로 또 다른 환상의 세계를 응시하고, 우리 또한 그의 그림을 통해 새로운 존재와 세계를 발견한다. 마침내 그는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로 미술계에 이름을 올린다. 화단에서의 성공 뒤에도 르동의 고독한 숨바꼭질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찾아주기만을 바라는 아이에서 희열에 찬 술래로 바뀐 것뿐이었다. 🐾



The cyclops\_1914  
\_www.krollermuller.nl



Vase of Flowers\_1906  
\_www.metstoreblog.org



Pegasus, the Horse on the Rock\_1907-10  
\_www.hiroshima-museum.jp